

하늘소망교회, 추수감사주일에 설립 예배

뉴저지 리지필드에서 하늘소망교회(담임 조관식 목사·사진)가 추수감사주일인 11월 24일 오후 5시 설립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예수교미주성결교회 미국동부지방회장 송일권 목사(퀸즈은혜교회)가 인도했다.

뉴저지 감찰장 오명석 목사(샘솟는교회)가 기도, 샘솟는교회 성가대가 특송, 지방회 서기 김성일 목사(하희커뮤니티교회)가 성경봉독, 총회장 박순탁 목사(섬기는 교회)가 설교, 지방회 부회장 서정학 목사(하희커뮤니티교회)가 헌금 기도,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장 장동신 목사(오늘의목양교회)가 권면, 하늘소망교회의 담임이자 지방회 회계인 조관식 목사가



광고, 전 한국교단총회장 조원집 목사(강서교회 원로목사)가 축도를 담당했다.

총회장 박순탁 목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7절을 본문으로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하늘소망교회 담임 조관식 목사는 “하늘소망교회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소명을 다하는 교회이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다. 천국을 사모하

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무감각해지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늘소망교회는 위에 것을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맡기신 지상명령에 더욱 힘쓰는 교회”라며 “하늘소망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천국백성이 누리는 충만함을 함께 누리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늘소망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9시50분, 학생 모임은 오후 3시, 청년 모임은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하늘소망교회 주소: 845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전화: 201-923-9341이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